제1장.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제1항.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기윽)	(니은)	(디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읏)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
ㄲ	ㄸ	ㅃ	ㅆ	ㅉ		
(된기윽)	(된디은)	(된비읍)	(된시읏)	(된지읒)		
ㅏ	ㅑ	ㅓ	ㅕ	ㅗ	ㅛ	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ㅠ	ㅡ	ㅣ	ㅐ	ㅒ	ㅔ	ㅖ
(유)	(으)	(이)	(애)	(얘)	(에)	(예)
ㅚ	ㅟ	ㅢ	ㅘ	ㅝ	ㅙ	ㅞ
(외)	(위)	(의)	(와)	(워)	(왜)	(웨)

자음글자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수 도 있다.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으), (즈), (츠), (크), (트), (프), (흐),
(끄), (뜨), (쁘), (쓰), (쯔)

제2장. 형태부의 적기

제2항. 조선어의 글에서 쓰는 받침은 다음과 같다.

ㄱ 책(책이, 책을, 책에)
먹다(먹으니, 먹어, 먹지)

ㄳ 몫(몫이, 몫을, 몫에)

ㄴ 논(논이, 논을, 논에)
안다(안으니, 안아, 안지)

ㄵ 앉다(앉으니, 앉아, 앉지)

ㄶ 많다(많으니, 많아, 많지)
낟알(낟알이, 낟알을, 낟알에)

ㄷ 굳다(굳으니, 굳어, 굳지)
듣다(들으니, 들어, 듣지)

ㄹ 길(길이, 길을, 길에)
멀다(머니, 멀어, 멀지)

ㄺ 닭(닭이, 닭을, 닭에)
맑다(맑으니, 맑아, 맑지)

ㄻ 삶(삶이, 삶을, 삶에)
젊다(젊으니, 젊어, 젊지)

ㄼ 여덟(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넓다(넓으니, 넓어, 넓지)

ㄵ 돐(돐이, 돐을, 돐에)

ㄾ 훑다(훑으니, 훑어, 훑지)

ㄿ 읊다(읊으니, 읊어, 읊지)

ㅀ 옳다(옳으니, 옳아, 옳지)

ㅁ 밤(밤이, 밤을, 밤에)
심다(심으니, 심어, 심지)

ㅂ 집(집이, 집을, 집에)
잡다(잡으니, 잡아, 잡지)

ㅄ 값(값이, 값을, 값에)
없다(없으니, 없어, 없지)

ㅅ 옷(옷이, 옷을, 옷에)
솟다(솟으니, 솟아, 솟지)

ㅇ 잇다(이으니, 이어, 잇지)
땅(땅이, 땅을, 땅에)

ㅈ 낮(낮이, 낮을, 낮에)
맞다(맞으니, 맞아, 맞지)

ㅊ 빛(빛이, 빛을, 빛에)
쫓다(쫓으니, 쫓아, 쫓지)

ㅋ 부엌(부엌이, 부엌을, 부엌에)

ㅌ 밭(밭이, 밭을, 밭에)

ㅍ 숲(숲이, 숲을, 숲에)
높다(높으니, 높아, 높지)

ㅎ 히읗(히읗이, 히읗을, 히읗에)
좋다(좋으니, 좋아, 좋지)

ㄲ 밖(밖이, 밖을, 밖에)
ㄲ 엮다(엮으니, 엮어, 엮지)
ㅆ 있다(있으니, 있어, 있지)

제3항. 받침 《ㄷ, ㅌ, ㅅ, ㅆ, ㅈ, ㅊ》 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적어야 할 까닭이 없는것은 관습대로 《ㅅ》으로 적는다.

례: 무릇, 빗나가다, 사뭇, 숫돌, 첫째, 헛소리, 햇곡식, 얼핏, 읽으렷다

제4항.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자음은 혀옆소리가 아닌 경우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

	옳음	그름
례:	겨누다	견우다
	디디다	딛이다
	미덥다	믿업다
	메추리	멧추리
	비치다	빛이다
	소쿠리	속후리
	시키다	식히다
	지키다	직히다
	여기다	역이다

	옳음	그름
례:	기쁘다	깃브다
	바싹	밧삭
	부썩	붓석
	해쓱하다	햇슥하다
	아끼다	앗기다
	여쭈다	엿주다
	오빠	옵바
	우뚝	웃둑
	으뜸	웃듬

제5항.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혀옆소리는 《ㄹㄹ》로 적는다.

	옳음	그름
례:	걸레	걸네
	놀라다	놀나다
	벌레	벌네
	실룩실룩	실눅실눅
	빨래	빨내
	알락달락	알낙달낙
	얼른	얼는

제6항.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된소리로 적는다.

	옳음	그름
례:	반짝반짝	반작반작
	걸써	걸서
	말씀	말슴
	벌써	벌서
	활짝	활작
	훨씬	훨신
	알뜰살뜰	알들살들
	옴짝달싹	옴작달삭
	뭉뚝하다	뭉둑하다.

그러나 토에서는 《ㄹ》 뒤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옳음	그름
례:	~ㄹ가	~ㄹ까
	~ㄹ수록	~ㄹ쑤록
	~ㄹ지라도	~ㄹ찌라도
	~올시다	~올씨다

제7항. 형태부의 소리가 줄어진 경우에는 준대로 적되 본래형태를 잘 파악할수 있도록 받침을 바로잡아 적는다.

	옳음	그름
례:	갖가지(가지가지)	갓가지
	갖고(가지고)	갓고
	기럭아(기러기야)	기러가
	딛고(디디고)	딧고
	엊저녁(어제저녁)	엇저녁
	온갖(온가지)	온갓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제8항.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같다, 같으니, 같아, 같지
낳다, 낳으니, 낳아, 낳지
삶다, 삶으니, 삶아, 삶지
입다, 입으니, 입어, 입지
집이, 집을, 집에
팥이, 팥을, 팥에
흙이, 흙을, 흙에

제9항. 오늘날 말줄기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들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옳음	그름
례:	고치다	곧히다
	나타나다	낱아나다
	바라보다	발아보다
	바치다	받히다
	부러지다	불어지다
	사라지다	살아지다
	자라나다	잘아나다
	자빠뜨리다	잡바뜨리다

말줄기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뜻이 딴 단어로 바뀐것은 그 말줄기와 토를 밝히지 않는다.

	옳음	그름
례:	드러나다	들어나다
	스무나문	스물남은
	쓰러지다	쓸어지다
	(열흘)나마	(열흘)남아
	(고개)너머	(고개)넘어

제10항. 일부 형용사, 동사에서 말줄기와 토가 어울릴때에 말줄기의 끝소리가 일정하게 바뀌여지는것은 바뀐대로 적는다.

1) 말줄기의 끝을 《ㄹ》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갈다 - 갈고, 갈며, 갈아
가니, 갑니다, 가시니, 가오
돌다 - 돌고, 돌며, 돌아
도니, 돕니다, 도시니, 도오
불다 - 불고, 불며, 불어
부니, 붑니다, 부시니, 부오

2) 말줄기의 끝을 《ㅅ》으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낫다 - 낫고, 낫지
나으니, 나아
짓다 - 짓고, 짓지
지으니, 지어
잇다 - 잇고, 잇지
이으니, 이어

3) 말줄기의 끝을《ㅎ》으로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벌겋다 - 벌겋고, 벌겋지
벌거오, 벌거니, 벌겁니다
벌개서
커다랗다 - 커다랗고, 커다랗지
커다라오, 커다라니, 커다랍니다
커다래서
허옇다 - 허옇고, 허옇지
허여오, 허여니, 허엽니다
허얘서

[붙임]

《ㅎ》받침으로 끝난 본래의 말줄기가 두 소리마디이상으로 된 형용사, 동사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4) 말줄기의 끝《ㄷ》를 《ㄹ》로도 적는 경우

례: 걷다 - 걷고, 걷지
걸으니, 걸어
듣다 - 듣고, 듣지
들으니, 들어
묻다 - 묻고, 묻지
물으니, 물어

5) 말줄기의 끝《ㅂ》을 《오(우)》로도 적는 경우

례: 고맙다 - 고맙고, 고맙지

고마우니, 고마와

곱다 - 곱고, 곱지

고우니, 고와

춥다 - 춥고, 춥지

추우니, 추워

6) 말줄기의 끝《ㄹ》를 《르ㄹ》로도 적는 경우

례: 누르다 - 누르고, 누르지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 푸르고, 푸르지

푸르러, 푸르렀다

이르다 - 이르고, 이르지

이르지, 이르렀다

7) 말줄기의 끝《르》를 《ㄹㄹ》로도 적는 경우

례: 기르다 - 기르고, 기르지

길러, 길렀다

빠르다 - 빠르고, 빠르지

빨라, 빨랐다

8) 말줄기의 끝《ㅡ》를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고프다 - 고프고, 고프지

고파, 고팠다

부르트다 - 부르트고, 부르트지

부르터, 부르텄다

뜨다 - 뜨고, 뜨지

떠, 떴다

9) 말줄기의 끝 《ㅜ》를 적거나 적지 않는 경우

례: 푸다 - 푸고, 푸지

퍼, 펐다

제11항. 말줄기가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릴 때에는 그 말줄기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는다.

1) 말줄기의 모음이 《ㅏ, ㅐ, ㅗ, ㅏㅡ, ㅗㅡ》인 경우에는 《아, 았》으로 적는다.

례: 막다 - 막아, 막았다

얇다 - 얇아, 얇았다

오다 - 와, 왔다

따르다 - 따라, 따랐다

오르다 - 올라, 올랐다

[붙임]

말줄기의 모음이 《ㅏㅡ, ㅗㅡ》인것이라도 합

친말줄기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받들다 - 받들어, 받들었다
곱들다 - 곱들어, 곱들었다
쪼들다 - 쪼들어, 쪼들었다

2) 말줄기의 모음이 《ㅓ, ㅕ, ㅜ, ㅡ, ㅓㅡ, ㅜㅡ, ㅡㅡ, ㅣㅡ》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넣다 - 넣어, 넣었다
겪다 - 겪어, 겪었다
두다 - 두어, 두었다
크다 - 커, 컸다
거들다 - 거들어, 거들었다
부르다 - 불러, 불렀다
흐르다 - 흘러, 흘렀다
치르다 - 치러, 치렀다

3) 말줄기의 모음이 《ㅣ, ㅐ, ㅔ, ㅚ, ㅟ, ㅢ》인 경우와 줄기가 《하》인 경우에는 《여, 였》으로 적는다.

례: 기다 - 기여, 기였다
개다 - 개여, 개였다
베다 - 베여, 베였다

되다 - 되여, 되었다

쥐다 - 쥐여, 쥐였다

희다 - 희여, 희였다

하다 - 하여, 하였다

그러나 말줄기의 끝소리마디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례: 길다 - 길어, 길었다

심다 - 심어, 심었다

짓다 - 지어, 지었다

[붙임]

부사로 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말줄기와 토를 갈라 적지 않는다.

	옳음	**그름**
례:	구태여	구태어
	도리여	도리어
	드디여	드디어

제12항. 모음으로 끝난 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한 토가 어울릴 때에 소리가 줄어든것은 준대로 적는다.

례1: 가지다 - 가지여, 가지였다

가지다 - 가져, 가졌다

고이다 - 고이여, 고이였다

괴다 - 괴여, 괴였다

모이다 - 모이여(모여),
모이였다(모였다)

뫼다 - 뫼여, 뫼였다

보다 - 보아, 보았다

보다 - 봐, 봤다

주다 - 주어, 주었다

주다 - 줘, 줬다

꾸다 - 꾸어, 꾸었다

꾸다 - 꿔, 꿨다

뜨이다 - 뜨이여, 뜨이였다

띄다 - 띄여, 띄였다

쏘다 - 쏘아, 쏘았다

쏘다 - 쏴, 쐈다

쏘이다 - 쏘이여, 쏘이였다

쐬다 - 쐬여, 쐬였다

쓰이다 - 쓰이여, 쓰이였다

씌다 - 씌여, 씌였다

쪼이다 - 쪼이여, 쪼이였다

쬐다 - 쬐여, 쬐였다

례2: 되다 - 되여서, 되였다

되다 - 돼서, 됐다

하다 - 하여서, 하였다

하다 - 해서, 했다

례3: 개다 - 개여서, 개였다

개다 - 개서, 갰다

메다 - 메여서, 메였다

메다 - 메서, 멨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줄어든대로 적는다.

례1: 살찌다 - 살쪄, 살쪘다

지다 - 져, 졌다

치다 - 쳐, 쳤다

찌다 - 쪄, 쪘다

례2: 건느다 - 건너, 건넜다

잠그다 - 잠가, 잠갔다

치르다 - 치러, 치렀다

크다 - 커, 컸다

쓰다 - 써, 썼다

례3: 가다 - 가, 갔다

사다 - 사, 샀다

서다 - 서, 섰다

켜다 - 켜, 켰다.

제13항. 말줄기의 끝소리마디 ≪하≫의 ≪ㅏ≫가 줄어들면서 다음에 온 토의 첫소리자음이 거세게 될 때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 말	준 말
례:	다정하다	다정타
	례하건데	례컨대
	발명하게	발명케
	선선하지 못하다	신선치 못하다
	시원하지 못하다	시원치 못하다

그러나 ≪아니하다≫가 줄어든 경우에는 ≪않다≫로 적는다.

	본 말	준 말
례:	넉넉하지 아니하다	넉넉치 않다
	서슴지 아니하다	서슴지 않다
	주저하지 아니하다	주저치 않다

[붙임]

이와 관련하여 《않다》, 《못하다》의 앞에 오는 《하지》를 줄인 경우에는 《치》로 적는다.

례: 고려치 않다, 괜치 않다, 넉넉치 않다, 만만치 않다, 섭섭치 않다, 똑똑치 않다, 우연치 않다, 편안치 못하다, 풍부치 못하다

제4장. 합친말의 적기

제14항.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 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1: 걷잡다, 낮보다, 눈웃음, 돋보다, 물오리, 밤알, 손아귀, 철없다, 꽃철, 끝나다

례2: 값있다, 겉늙다, 몇날, 빛나다, 칼날, 팥알, 흙내

《암, 수》와 결합되는 동물의 이름이나 대상은 거센소리로 적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는다.

례: 수돼지, 암돼지, 수개, 암개, 수기와, 암기와

제15항. 합친말에서 오늘날 말뿌리가 뚜렷하지 않은것은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례: ㅡ 며칠, 부랴부랴, 오라버니, 이틀, 이태

ㅡ 마파람, 휘파람, 좁쌀, 안팎

제16항. 합친말을 이룰 때에 빠진 소리는 빠진대로 적는다.

례: 다달이, 마소, 무넘이, 부나비, 부넘이, 부삽, 부손, 소나무, 수지, 화살, 여닫이

제17항. 합친말에서 앞말뿌리의 끝소리《ㄹ》이 닫긴소리로 된것은 《ㄷ》으로 적는다.

례: 나흗날, 사흗날, 섣달, 숟가락, 이튿날

제5장.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제18항.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본래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ㅡ 갖풀, 덧신, 뒤일, 맏누이, 선웃음, 참외, 햇가지, 아래집, 웃집, 옛말
ㅡ 빗보다, 싯허옇다, 짓밟다, 헛디디다

제6장. 말뿌리와 뒤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

제19항. 자음으로 시작한 뒤붙이가 말뿌리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형태를 밝혀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새 단어를 새끼치는 뒤붙이

례: ㅡ 곧추, 날치, 덮개, 돋보기, 셋째, 잎사귀

ㅡ 꽃답다, 뜬적뜬적하다, 의롭다

2) 동사의 사역, 피동의 기능을 나타내는《이, 히, 기, 리, 우, 구, 추》

례: 놓이다, 막히다, 꽂히다, 뽑히다, 앉히다, 익히다, 입히다, 감기다, 담기다,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살리다, 새우다, 돋구다, 맞추다

3) 힘줌을 나타내는《치》

례: 놓치다, 덮치다, 받치다, 뻗치다, 엎치다

4)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추》, 《히》

례: ㅡ 낮추다, 늦추다

ㅡ 굳히다, 넓히다, 밝히다

5)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로 될수 있는 말뿌리와 어울려 부사를 만드는 뒤붙이 《히》

례: 넉넉히, 답답히, 미끈히, 꾸준히, 똑똑히, 빤히, 씨원히

제20항. 말뿌리와 뒤붙이가 어울려 파생어를 이룰 때에 빠진 소리는 빠진대로 적는다.

례: 가으내, 겨우내, 무질(물속에 잠기는것), 바느질

제21항. 《ㄺ, ㄻ, ㄾ, ㅀ》 등의 둘받침으로 끝난 말뿌리에 뒤붙이가 어울릴 때에 그 둘받침중의 한 소리가 따로 나지 않는것은 안나는대로 적는다.

례: 말끔하다, 말쑥하다, 실쭉하다, 할짝할짝하다, 얄팍하다

제22항. 말뿌리와 뒤붙이가 어울리여 아주 다른 뜻으로 바뀐것은 그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지 않는다.

례: 거두다, 기르다, 도리다, 드리다, 만나다, 미루다, 부치다, 이루다

제23항. 모음으로 된 뒤붙이가 말뿌리와 어울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 적는다.

1)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는 경우

(1)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뒤붙이 《이》

례: — 길이, 깊이, 높이, 미닫이, 살림살이, 손잡이, 해돋이

— 네눈이, 삼발이

— 같이, 굳이, 깊이, 많이, 좋이

— 곳곳이, 낱낱이, 샅샅이, 집집이

그러나 본딴말에 붙어서 명사를 이루는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

례: 누더기, 더퍼리, 두드러기, 무더기, 매미, 깍두기, 딱따기

(2) 명사를 만드는 뒤붙이 《음》

례: 갚음, 걸음, 물음, 믿음, 졸음, 죽음, 꽃묶음, 엮음, 웃음, 이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지 않는다.

례: 거름(거름을 내다)
고름(고름을 짜다)
마름(한마름, 두마름)
주검(주검을 다루다)

(3) 동사의 상을 나타내거나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이》, 《우》, 《으키》, 《이키》, 《애》

례: 높이다, 놓이다, 먹이다, 쌓이다, 돋우다, 일으키다, 들이키다, 없애다

(4)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로 될수 있는 《ㅅ》받침으로 끝난 말뿌리와 어울려서 부사를 만드는 뒤붙이 《이》

례: 반듯이(반듯하게 펴놓다), 꼿꼿이, 깨끗이, 따뜻이, 뚜렷이, 빵긋이, 뿌듯이, 어렴풋이

(5) 형용사를 만드는 《없》

례: 객없다, 덧없다, 부질없다, 시름없다

(6) 《거리》와 어울릴수 있는 말뿌리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뒤붙이 《이》

례: 반짝이다, 번득이다, 번쩍이다, 속삭이다, 움직이다

2)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지 않는 경우

(1) 말뿌리에 《이》, 《음》이외의 뒤붙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나 부사

례: 나머지, 마감, 마개, 마중, 바깥, 지붕, 지푸레기, 끄트머리, 뜨더귀, 싸레기, 쓰레기, 올가미

례: 너무, 도로, 바투, 비로소, 자주, 뜨덤뜨덤

례: 거뭇거뭇, 나붓나붓, 쫑긋쫑긋, 오긋오긋, 울긋불긋

(2) 어떤 토나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말뿌리에 뒤붙이 《이》, 《애기》, 《어기(에기)》, 《아기》가 붙어서 된 명사나 부사

례: 갑자기, 동그라미, 반드시, 슬며시, 호르래기, 부스레기

(3) 뒤붙이 《앟, 엏》 또는《업》,《읍》이 붙어서 이루어진 형용사

례: 가맣다, 발갛다, 파랗다, 싸느랗다, 누렇다, 둥그렇다

례: 간지럽다, 미덥다, 부드럽다, 시끄럽다, 징그럽다, 어지럽다, 우습다

제24항. 부사에서 뒤붙이 《이》나 《히》가 그 어느 하나로만 소리나는것은 그 소리대로 적는다.

1) 《히》로 적는것(주로 《하다》를 붙일수 있는것)

례: 고요히, 덤덤히, 마땅히, 빈번히, 지극히, 뻔히

2) 《이》로 적는것(주로 《하다》를 붙일수 없는것)

례: 간간이, 고이, 기어이, 객쩍이, 뿔뿔이, 짬짬이

3) 말뿌리에 직접《하다》를 붙일수 없으나 《히》로만 소리나는것은 《히》로 적으며 말뿌리에 직접 《하다》를 붙일수 있으나《이》로만 소리나는것은 《이》로 적는다.

례: — 거연히, 도저히, 자연히, 작히

— 큼직이, 뚜렷이

제7장. 한자말의 적기

제25항.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 자음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국가, 녀자, 뇨소, 당, 락원, 로동, 례외, 천리마, 풍모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자말은 변한 소리대로 적는다.

	옳음	**그름**
례:	궁냥	궁량
	나사	라사
	나팔	라팔
	류월	륙월
	시월	십월
	오뉴월	오류월, 오륙월
	요기	료기

제26항. 한자말에서 모음 《ㅖ》가 들어있는 소리마디로는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한다.

례: 계산, 계획, 례절, 례외, 실례, 세계, 혜택, 은혜, 연예대, 예술, 예지, 예약

그러나 그 본래소리가 《게》인 한자는 그대로 적는다.

례: 게시판, 게재, 게양대

제27항. 한자말에서 모음 《ㅢ》가 들어있는 소리마디로는 《희》, 《의》만을 인정한다.

례: 희망, 순희, 유희, 회의, 의견, 의의

띄여쓰기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글을 보기 헐하게 하려면 띄여쓰기를 잘 규정하여주는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전집》 36권, 512페지)

총 칙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쓴다.

제1항. 토뒤의 단어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쓴다.

례: —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필승의 보검이다.

—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더 큰 하나가 된다.

— 두 대학생의 아름다운 소행

— 온갖 새들이 찾아드는 숲
— 전쟁시기 잘 싸운 로병부부
— 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인가!
— 옴의 법칙, 피타고라스의 정리
— 저녁을 먹은 후에 보자.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작업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제2항.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디들은 토가 끼이였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쓴다.

1) 토가 없이 이루어져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례: — 선군혁명로선, 군사중시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 건설하다, 각성되다, 궐기시키다, 꽃피다, 불타다, 애쓰다, 때이르다, 가슴뜨겁다, 기쁨어리다, 꿈꾸다, 잠자다
— 척척박사, 갑작부자, 만세소리
— 1호발전기, 3호변전소
— 최신형설비, 혁명적군인정신, 조선식사회주의

— 세손가락울림법, 미리덥히기, 갑작변이

— 새날, 새서방, 별말씀, 온종일, 총지휘자, 총참모부, 대조선정책

— 아침저녁, 서로서로, 가슴깊이, 다같이, 때아닌, 첫째가는, 지대공미싸일

2) 토를 가지고 이루어져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례: — 작은아버지, 큰고모, 잔돈, 멜가방, 앉을자리, 가까운바다, 먼바다, 찬단물, 식은땀

— 모내는기계, 붉은기, 푸른색, 짠맛, 신맛

— 떨어지다, 몰아치다, 놀아나다, 빚어내다, 먹어대다, 붙어잡다, 놀고먹다, 가고말다, 먹고싶다, 짜고들다, 가르쳐주다, 돌아보다, 들었다놓다

— 여러말할것없이, 의심할바없는, 아니나다를가, 가나오나, 가든오든, 가건말건, 달디단, 가네오네, 죽기내기로, 하다못해, 왜냐하면, 무엇보다먼저

제3항.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되 마디를 이루면서 잇달리는 것은 매 마디마디 띄여쓴다.

례: —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책공업종합대학, 대동문식료품상점, 리계순사리원제1사범대학

— 조선로동당 평양시 중구역위원회,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사회과학원 행정조직국

— 조선통일지지 라오스위원회,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로씨야 챠이꼽스끼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합창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기 제○차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6돐기념 중앙과학토론회

—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 금성친위 제○○군부대, 2중3대 혁명붉은기 ○○공장, 3중영예의 붉은기 ○○소학교

— 김영남군당책임비서, 리순실동사

무장, 리남순과학지도국장, 리철호실장선생

—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선생

제4항. 수사는 백, 천, 만, 억, 조단위로 띄여쓰며 수사뒤에 오는 단위명사와 일부 단어는 붙여쓴다.

례: — 3조 2억 8천만

— 7만 8천 6백 20

— 닭알 3알, 살림집 두동, 학습장 5권

— 70평생, 60나이, 20여성상, 3년세월

— 서른살가량, 20명정도, 10℃이하, 150%

[붙임]

수량수자는 옹근수인 경우 왼쪽으로 가면서, 소수인 경우 오른쪽으로 가면서 세단위씩 띄여쓴다.

례: 1 000 000 000(10억)

0.002 321 67

그러나 대상화된 단어이거나 고유명사인 경우 붙여쓴다.

례: 1211고지, 3000t 급배

제5항. 불완전명사(단위명사 포함)는 앞 단어에 붙여쓰되 그뒤에 오는 단어는 띄여 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아는것이 힘이다.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것은 나쁜 버릇이다.
— 힘든줄 모르고 일한다.
— 커서 인민군대가 될터이다.
— 4월초 봄날씨, 2일부 《로동신문》
— 3개 공병려단
※《등, 대, 겸》은 다음과 같이 띄여쓴다.
— 알곡 대 알곡, 부총리 겸 재정상
— 사과, 배, 복숭아 등(등등)

제6항. 단어들사이의 맞물림관계를 고려하여 뜻을 리해하기 쉽게 띄여쓰기를 할 수 있다.

1) 앞단어와 맞물리지 않는 단어는 띄여쓴다.

례: —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

— 고유한 우리말 어근으로 새말을 만든다.

2) 붙여쓰면 두가지 뜻으로 리해될수 있는것은 뜻이 통하게 띄여쓴다.

례: — 김인옥어머니(어머니자신)
— 김인옥 어머니(김인옥의 어머니)
— 중세 언어연구(중세에 진행된 언어연구)
— 중세언어 연구(중세의 언어에 대한 연구)
— 사리원, 평산일대(두 지역 포괄)
— 사리원, 평산 일대(사리원일대, 평산일대)

3) 토없이 결합된 단위가 너무 길어 읽고 리해하기 힘들 때에는 뜻단위로 띄여쓸수 있다.

례: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궐기모임 참가자들
—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문장부호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단어형태를 고정시키는 문제는 아마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잘 연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네모글자를 가지고라도 띄여쓰기와 점치기 같은것으로 조절하면 이 문제도 어느정도 풀릴수 있을것 같습니다》(《**김일성**전집》 32권, 360페지)

총 칙

조선말의 문장부호는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 따라 갈라주기 위하여 친다.

제1항. 우리 글에서 쓰는 부호와 종류와 이름

.	점	《 》	인용표
:	두점	……	밑점
,	반점	〈 〉	거듭인용표
?	물음표	○○○, ×××, □□□	숨김표
!	느낌표	( )	쌍괄호
-	이음표	〔 〕	꺾쇠괄호
—	풀이표	〃	같음표
…	줄임표	～	물결표

제2항. 점(.)

1) 문장(감탄문과 의문문 제외)이 끝났을 때 문장끝의 오른편 아래쪽에 친다. (이 부호의 이름을 《끝점》이라 할수 있다.)

례: 우리 시대는 위대한 주체시대이다.

2) 략자나 줄임말임을 보여주기 위해 친다.

(1) 년, 월, 일이나 이름을 줄인 경우에는 그 수나 글자의 오른편 아래쪽에 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2000. 10. 10.
2007.9.
2009.
2001—2010.
아. 엔. 똘스또이

(2) 략자나 달과 날의 수자가 합쳐져 명사화되였거나 그뒤에 자립적인 단어가 올 때에는 그 말마디의 사이에 친다.

례: — 《ㅌ.ㄷ》
— 4.25축구팀
민족최대의 명절 4.15
9.9절

[참고]
과학기술부문에서 생겨나는 준말사이에는 점을 치지 않는다.

례: DNA (데핵산)
DVD (디브이디)

3) 대목이나 장, 절과 같은 단계를 구분하는 경우에 친다.

1. 1) (2) ④와 같은 단계를 보여줄 때 친다.

례: — 제1장. 제1절. 제1조. 제6항.

— Ⅰ. 1. ㄱ.

례: 과. 목. 강.

[참고]

반괄호나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에는 치지 않는다.

례: 1) 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점을 치지 않는다.

례: 도표 1—2

그림 2—1

1—씨, 2—잎, 3—꽃

제3항. 두점(:)

(1) 뒤의 설명을 보라는것을 밝히는 단어나 말 마디뒤에 친다.

례: — 례:

— 물음:

— 대답:

— 김은덕동무의 토론:

순이의 야무진 말:

— 열매의 종류:

— 실험조건:

2) 맞세우는 관계를 표시하거나 단계로 됨을 나타낼 때 친다.

례: — 배합비률은 1:2로 섞는다.

두만강:청천강(두만강팀:청천강팀)

— 10:10(10시 10분)

제4항. 반점(,)

1) 복합분에서 이음토가 없이 문자들이 이어질 때 단일문들사이에 친다.

례: 나는 로동자, 너는 농장원.

2) 어떤 문장이나 말마디가 렬거되거나 맺음토로 끝났다 하더라도 뒤의 문장이나 말마디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을 때에는 그 맺음토의 뒤에 친다.

례: — 왔고나, 왔고나, 혁명이 왔고나.

— 바람이 세다, 창문을 주의해라.

—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고, 래일은 더욱 좋을 우리 생활!

3) 문장속에서 같은 성분들사이를 갈라주거나 죽 들어 말한 단어들사이를 갈라주기 위해 친다.

례: — 도시와 농촌에서, 일터와 마을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은 약동하고있다.

— 우리는 작품창작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과수원에는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들이 대단히 많다.

[참고]

반의어적, 대구적관계에서의 렬거는 반점을 치지 않는다.

례: — 앉든가 가든가 해라.

— 가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

— 가느냐 마느냐 빨리 결정하자.

— 갈가 말가 하는 태도

4) 문장에서 부름말, 느낌말의 뒤에 친다.

례: — 아바이, 고맙습니다.

— 과장동지, 오늘 계획을 100%로 수행했습니다.

— 아, 우리 조국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옳아, 네 말이 맞았어.

5) 제시어뒤에 친다.

례: — 혁명적예술인이 되는것, 이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창조하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된다.

—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민족간부, 그가운데서도 기술간부가 많이 자랐다.

6) 문장성분의 차례를 바꾸어 한 부분을 특별히 힘주어 나타낼 때에는 그 힘준 말뒤에 친다.

례: — 나가자, 판가리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 그가 왔답니다, 전쟁때 우리 집에 얼마간 묵어갔던 그 군관아저씨가…

제5항. 물음표(?)

1) 물음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친다.

례: —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이 하여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

— 차는 몇시에 떠났어?

2) 의심쩍거나 망설이게 됨을 나타낼 때 친다.

례: — 박선생이 왔다?

— 어떻게 할가? 이것도 가져간다?

[참고]

수사학적물음으로 된 문장이 끝났을 때에는 점을 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동무가 그래서 되겠는가. 대오의 앞장에 서야 할 동무가 말이요.

제6항. 느낌표(!)

1)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친다.

례: — 여기에 한 당원의 기록장이 있다!

— 아, 금강산은 참말 아름답구나!

2) 부름말, 느낌말, 제시어 등이 감동적어조를 가지고있을 때 그뒤에 친다.

례: — 동무들! 우리의 생활이 행복할수록
피눈물나던 지난날을 잊지 맙시다.
— 백두산! 너는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조선의 넋이여라.

제7항. 이음표(-)

두개이상의 단어가 어울리여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나타낼 때 친다.

례: 조선-꾸바친선협회
맑스-레닌주의
굳은-넓은잎나무
구조-문법적특성
물리-화학적성질

제8항. 풀이표(—)

1) 같은 종류의 문장성분들과 그것에 대한 묶음말사이에 친다.

례: 벼, 보리, 밀, 강냉이—이런 알곡들은…
이런 알곡들—벼, 보리, 밀, 강냉이 등은…

2) 동격어의 뒤에 칠수 있다.

례: —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렬사들이 걸어온 길—혁명의 길은 간
고하고도 영예로운 길이였다.

3)《에서 — 까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친다.

례: 평양—신의주
6.25—7.27미재반대투쟁의 날

4) 특수한 글에서 주어와 술어가 토없이 맞물렸을 때 그사이에 칠수 있다.

례: 나 — 《갈매기》호 선장
철호 — 통신병
순이 — 간호원

제9항. 줄임표(…, …… …, …… …… ……)

1) 단락이나 그보다 큰 단위가 줄었을 때에는 석점짜리 세개 《…… …… ……》를 친다.

2) 문장이 줄었을 때에는 석점짜리 두개 《…… ……》를 친다.

3) 단어나 문장의 일부 말마디가 줄었을 때 줄어진 부분에 석점《…》을 친다.

제10항. 인용표(《 》)

1) 이미 이루어진 말이나 대화를 인용할 때 그 문장의 앞뒤에 친다.

례: 《야, 백두산이 보인다!》
박동무는 《내가 이겼지.》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2) 말마디나 표현을 드러내서 나타낼 때 친다.

① 도서, 작품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

례: — 도시 《인민들속에서》 제15권
—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 태양절기념무도회 《태양절을 노래하세》
—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불보라》

② 제품, 품종, 상품 등의 고유명을 나타내는 경우

례: —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
— 우량벼종자《강성1》호
— 무역짐배《지성5》호
— 《AH—64아파치》직승기

③ 특수하게 이루어진 단체, 기관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

례: —《ㅌ.ㄷ》

— 로씨야《평화와 오늘》위원회

— 중국《환경교육보급계획》대표단

—《미국은 물러가라》위원회

3) 《이른바》라는 뜻을 가지고 따온 일반적인 말마디나 부정적인 표현의 앞뒤에 친다.

례: — 《하늘의 독수리》라는 비행사

—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

제11항. 거듭인용표(〈 〉)

인용한 말안에 또 다른 인용문이 들어가는 경우에 친다.

례: — 《영철동무는〈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계획된대로 내밀자고 토론했소》

— 《우리 문조에는〈천리마〉호가 3대나 배정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표안에 들어가는 모든 인용표는 거듭인용표를 친다.

례:《우리는 오늘〈조선로동당은 영광스

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
형의 혁명적당이다〉의 기본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제12항. 쌍괄호와 꺾쇠괄호(( ) , [ ])

1) 본문을 보충하기 위하여 붙인 말의 앞뒤에 쌍괄호(( ))를 친다.

례: —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다. (그 해도 풍년이 들었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나는 나에게 훌륭한 농업전문가가 되여 돌아오라고 당부하였다.
— 우리는 몹시 기뻤다. (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으로 하여)
— 전보미동무 (로력영웅이다.) 는 오늘도 자기 계획을 2배로 넘쳐하였다.

2) 인용하는 말이 나온 곳을 밝히는 말마디의 앞뒤에 쌍괄호(( ))를 친다.

례: —《인적드문 심산유곡에서 구차한 생을 도모하고있는 이 늙은 백성이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장군님의 존안을 이렇게 문득 뵈옵게 되니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3) 괄호안에 또 다른 쌍괄호나 인용표가 있을 때 바깥것은 꺾쇠괄호([ ])로 묶는다.

례: — 《근대철학의 큰 기본문제는 존재에 대한 사유의 관계여하의 문제이다.》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 (에프.엥겔스)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년, 25페이지]

제13항. 인용표와 쌍괄호안에서의 부호사용법

1) 인용표나 쌍괄호안의 말이 문장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한 부호를 친다.

례: — 《올해도 거름을 많이 냅시다! 정당 20t은 문제없습니다.》라고 분조장은 신이 나서 말한다.
— 우리는 매우 긴장한 투쟁을 하고 있었다. (상반년계획을 4.15전으로 끝내야 했었다.)

[붙임]

《〈…〉라고》로 끝나는 경우에 《라고》의 뒤에는 해당한 부호를 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50t은 문제없습니다.》라고.

《빨리 서둘자요!》라고…

《번개》라고?

2) 인용표나 쌍괄호안의 말이 문장이 아닐 때에는 아무 부호도 치지 않는다.

례: —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를 학습한다.

— 학생들(다섯사람)은 노래부르며 마을앞을 지나갔다.

[붙임]

그러나 인용표나 쌍괄호안의 말이 여러 마디일 때에는 그것들사이를 구별하는 부호를 친다.

례: —《견주다, 겨누다, 겨루다》는 소리가 비슷하나 뜻이 다른 딴 단어들이다.

— 같이 있던 네사람(작업반장, 분조장, 태식아바이, 성숙)이 달려왔다.

3) 쌍괄호안의 말이 전체 문장의 끝에 있는 경우에는 괄호뒤에 아무 부호도 치지 않는다.

례: — 공든 탑이 무너지랴?(속담)

— 눈접방법(그림5)

4) 인용표안에 있는 문장의 끝에서 전체 문장도 끝나는 경우에는 끝맺는 부호를 다음과 같이 친다.

례: —《얘, 주의해,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속담에도 있지만 (때지 않은 굴
뚝에서 연기날가?)》

— 《동무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
일유격대식으로!〉》

제14항. 밑점(.....)

문장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어 강조하는 부분에 치되 점의 수는 글자의 수에 따른다.

례: 우리의 관심은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였는가에 있었다.

[붙임]

중점을 두어 강조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밑줄(_____)이나 물결줄(～～～)같은 것도 쓸수 있다.

제15항. 숨김표(×××, □□□, ○○○ 등)

문장에서 글자로 나타낼 필요성이 없을 때 그 글자수만큼 친다.

례: 아프리카의 일부 지방에 들이닥친 무

더기비로 ×××에서는 약 ○○

○○정도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붙임]

숨김표는 출판물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것을 쓸수도 있고 서로 다른것을 쓸수도 있다.

숨김표의 구체적인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위숨김표 ×××(가위 가위 가위)

네모숨김표 □□□(네모 네모 네모)

동그라미숨김표○○○(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제16항. 같음표(〃)

같은 말이나 같은 표현이 겹쳐 나올 때 두번째부터의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쓸수 있다.

례: 제1작업반 50명

제2작업반 〃

제6작업반 〃

[붙임]

때에 따라서는 같음표를 《ㅡ〃ㅡ》로도 표시할수 있다.

례: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

남포시 ——〃——

제17항. 물결표(~)

1) 《내지》라는 뜻으로 쓰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마지막 수자에만 붙인다.

례: — 10~12시
— 5~8월
— 100~150명
— 1 200~1 600km/h
— 90~100㎧
— 10만~15만개

2) 단위가 되풀이되면서 그 일부를 줄일 때 쓴다.

례: 체육
~가
~하다

제18항. 제목글에서의 부호사용법

1) 제목글에서 느낌문, 물음문의 경우는 문장의 끝에 해당한 부호를 치고 서술문의 경우에는 끝점을 치지 않을수 있다

례: 우리 식으로 꾸려놓으니 보기도 좋다!
누가 이겼을가?
모내기를 끝냈다

2) 신문, 잡지 등의 제목글이 명명문이나 맺음토없이 끝난 문장인 경우에는 부호를 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충실성의 귀감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붙임]

그러나 특별히 감정의 색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해당한 부호를 칠수도 있다.

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힘장수?》

제19항. 대목이나 장, 절, 문단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그 이름도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 Ⅰ,Ⅱ,Ⅲ …… 로마수자 일, 이, 삼
  1, 2, 3 …… 아라비아수자 일, 이, 삼
  1) , 2) , 3) …… 반괄호 일, 이, 삼
- ㄱ……그
  ㄴ……느
  ㄷ……드
- ①, ②, ③ …… 동그라미 일, 이, 삼

△ …… 삼각

— …… 풀이표

○ …… 동그라미

· …… 풀이점

※ …… 참고표

* …… 꽃표

보충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빗선(/)

빗선은 짝을 이루거나 몫을 표시할 때 친다.

례: 가/이, 는/은

1kg/3명분, 200J/100g

2) 겹부호(?!, !!, !?, ?? …)

문예작품의 글과 같이 형상성을 가진 문장에서 감정,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친다.

례: 《대장동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곧 승용차가 올겁니다.》

《승용차요?!》(의문과 감탄)

3) 련결점(……)

제목이나 차례의 뒤에 보충하는 설명을 붙일 때 공백을 련결하기 위하여 칠수 있다.

례: 제1장, 모음의 발음 ……1

4) 내려쓰는 글에서의 부호사용법

① 점(.)과 반점(,)은 가로쓸 때와 같이 치되 오른편에 치우쳐 찍는다.

례:

어서 가자.

사과, 배 등

② 물음표, 느낌표, 풀이표, 줄임표, 이음표, 물결표는 가로쓸 때와 같이 치되 내려쓰는 글의 가운데에 친다.

례:

≪뭐? 백두산!≫

야、백두산이 보인다!≫

평양ㅡ신의주

이제 온다고 하던데…≫

맑스ㅡ레닌주의

3~4번 먹는다.

③ 인용표, 거듭인용표, 쌍괄호는 가로쓸 때와 같이 치되 내려쓰는 글의 머리부와 끝부분에 친다.

례:

내가 난 해(2001년)에
《오늘호 〈로동신문〉 소개》
《다시한번 평양속도를 창조》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

④ 두점(:)은 줄임표(…)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글줄과 가로방향(‥)으로 친다.

례:

주원료‥ 사탕、 우유

문화어발음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말과 글로써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32권, 355페지)

총 칙

조선말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

제1장. 모음의 발음

제1항. 모음들이 일정한 자리에서 각각 짧고 높은 소리와 길고 낮은 소리의 차이

가 있는것은 있는대로 발음한다.

	짧고 높은 소리	길고 낮은 소리
례:	밤(낮과 밤)	밤(밤과 대추)
	곱다(손이 곱다)	곱다(꽃이 곱다)

제2항. 《ㅢ》는 겹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의리, 의무, 의사, 의탁, 의롭다, 의젓하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붙임]

1) 자음과 결합할 때와 단어의 가운데나 끝에 있는 《ㅢ》는 [ㅣ]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례: — 희망[희망/히망], 띄우다[띠우다], 씌우다[씨우다]

— 결의문[겨릐문/겨리문], 정의[정이], 의의[의이], 회의[회의/회이]

2) 속격토로 쓰인 경우 일부 [ㅔ]와 비슷하게 발음함을 허용한다.

례: 혁명의 북소리[형명에 북쏘리]

우리의 집은 당의 품[우리에 지븐 당에 품]

제3항. 《ㅚ》, 《ㅟ》는 어떤 자리에서나 홑모음으로 발음한다.

례: — 외국, 외삼촌, 외지다, 대외사업
— 위대하다, 위병대, 위하여, 가위

제4항. 《ㄱ,ㅎ,ㄹ》뒤에 있는 《ㅖ》는 각각 [ㅖ]로 발음한다.

례: 계속[게속], 계시다[게시다], 관계[관게], 례절[레절], 사례[사레], 차례[차레], 혜택[헤택], 은혜[은헤]

제2장. 첫소리자음의 발음

제5항. 《ㄹ》은 모든 모음앞에서 [ㄹ]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라지오, 려관, 론문, 루각, 리론, 레루, 용광로

그러나 한자말에서 《렬, 률》은 편의상 모음뒤에서는 [열]과 [율]로, 《ㄹ》을 제외한 자음뒤에서는 [녈], [뉼]로 발음한다.

례: ― 대렬[대열], 규률[규율]

― 선렬[선녈], 정렬[정녈], 선율[선뉼]

제3장. 받침자모와 관련한 발음

제6항. 우리 말의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다.

제7항. 《ㄹ》이 받침소리로 될 때에는 혀옆소리로 발음한다.

례: ― 갈, 갈매기, 놀다

― 달과 별, 말과 글, 쌀과 물, 얼른

― 갈라지다, 달리다, 몰리다, 빨래, 쏠리다

제8항.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호상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받침 《ㄳ, ㄺ, ㅋ, ㄲ》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ㄱ]으로 발음한다.

례: — 넋살[넉쌀], 늙다[늑따], 부엌세간[부억세간], 낚시[낙시]

— 몫[목], 닭[닥], 동녘[동녁], 밖[박]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끝의 받침《ㄺ》은 《ㄱ》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례: — 맑고[말꼬], 맑구나[말꾸나], 맑게[말께], 맑기[말끼]

— 붉고[불꼬], 붉구나[불꾸나], 붉게[불께], 붉기[불끼]

2) 받침《ㅅ, ㅈ, ㅊ, ㅌ, ㅆ》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ㄷ]으로 발음한다.

례: — 잇다[읻따], 잦다[잗따], 닻줄[닫쭐], 밭갈이[받깔이], 있다[읻따]

— 옷[옫], 젖[젇], 꽃[꼳], 뭍[묻]

3) 받침 《ㄻ, ㄿ, ㅄ, ㅍ》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ㅂ]으로 발음한다.

례: 넓지[넙찌], 읊다[읍따], 없다[업따], 높다[놉따], 값[갑]

그러나 형용사말줄기끝의 받침 《ㄻ》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며《여덟》은 [여덜]로 발음한다.

례: 넓게[널께], 짧고[짤꼬], 얇기[얄끼], 섧게[설께], 떫구나[떨꾸나]

4) 받침《ㄽ, ㄾ, ㅀ》의 받침소리는 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ㄹ]로 발음한다.

례: ㅡ 곯빠지기[골빠지기], 핥다[할따], 곯느냐[골르냐], 옳네[올레]
ㅡ 돐[돌], 곯[골]

5) 받침《ㄻ》의 받침소리는 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ㅁ]으로 발음한다.

례: ㅡ 젊다[점따], 젊고[점꼬]
삶느냐[삼느냐], 삶네[삼네]
ㅡ 고결한 삶[~삼], 죽음과 삶[~삼]

6) 받침《ㄵ, ㄶ》의 받침소리는 자음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

례: ㅡ 앉다[안따], 앉고[안꼬]
얹게[언께], 얹느냐[언느냐]
ㅡ 많다[만타], 많고[만코], 많네[만네]

7) 말줄기끝의 받침 《ㅎ》은 단어의 끝소리 마디에서와 《ㅅ》이나 《ㄴ》으로 시작된 토앞에서 [ㄷ]처럼 발음한다.

례: — 히읗[히읃]
— 좋소[좉소→조쏘], 좋니[좉니→존니]
— 놓네[녿네→논네]

제4장. 받침과 이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9항. 모음앞에 있는 받침은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이어서 발음한다.

1)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앞에 있는 받침은 이어서 발음한다. 둘받침의 경우에는 왼쪽받침을 받침소리로, 오른쪽받침을 뒤모음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례: — 높이[노피], 삼발이[삼바리]
— 몸에[모메], 밭으로[바트로], 꽃을[꼬츨]
— 젖어서[저저서], 갔었다[가썯따], 씻으며[씨스며]

— 닭을[달글], 곬이[골시], 값에[갑쎄]

— 맑은[말근], 밟아[발바], 읊어[을퍼], 젊은이[절므니]

그러나 부름을 나타내는 토《-아》앞에서 받침은 끊어서 발음한다.

례: 벗아[벋아→버다], 꽂아[꼳아→꼬다]

2) 한자말에서 모음앞에 놓이는 받침은 모두 이어서 발음한다.

례: — 검열[거멸], 답안[다반], 국영[구경], 월요일[워료일]

— 8.15[파리로], 3.14[사밀싸]

제5장. 받침의 끊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끊어내기는 받침자모를 발음을 끝낼 때의 받침소리로 바꾸고 뒤의 모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대응관계는 제9항과 같다.

제10항. 모음 《아, 어, 오, 우, 애, 외》로 시작한 고유어말뿌리앞에 있는 받침은 끊어서 발음한다.

례: — 부엌안[부억안→부어간], 넋없다
[넉업따→너겁따]
— 옷안[옫안→오단], 첫애기[첟애
기→처대기], 젖어머니[젇어머니→
저더머니], 닻올림[닫올림→다돌림]
— 무릎우[무릅우→무르부]

[붙임]

《있다》앞에 오는 받침들도 끊어서 발음한다.

례: 값있는[갑읻는→가빈는]

그러나《맛있다》,《멋있다》는 이어내여 발음함을 허용한다.

례: 맛잇다[마싣따/마딛따], 멋있게[머싣께/머딛께]

제11항. 단어들이 결합관계로 되여있는 경우에도 앞단어가 받침으로 끝나고 뒤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될 때에는 끊어서 발음한다.

례: 팥 아홉키로[팓 아홉키로], 짚 열단[집 열딴], 옷 열한벌[옫 여란벌], 첫 의정[첟 의정/처 듸정]

제6장. 된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12항. [ㄱ, ㄷ, ㅂ]으로 나는 받침소리 뒤에 오는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 국밥[국빱], 맏사위[맏싸위], 곱돌[곱똘]

— 흙밥[흑빱], 꽃밭[꼳빧], 없다[업따], 밟기[밥끼]

제13항.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끝의 받침《ㄴ, ㄵ, ㄻ, ㅁ》과 《ㄹ》로 발음되는 받침《ㄺ, ㄿ, ㄾ》 뒤에 오는 토나 뒤붙이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 (아기를)안다[안따], 안고[안꼬], 안기[안끼]

— 앉다[안따], 앉고[안꼬], 앉기[안끼]

— 옮다[옴따], 옮고[옴꼬], 옮기[옴끼]

— (나무를)심다[심따], 심고[심꼬],

심기[심끼]

— 굵게[굴께], 얇고[얄꼬], 훑다[훌따], 핥기[할끼]

제14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ㄹ》 받침 뒤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1) 한자말에서 뒤의 순한소리가 《ㄷ, ㅅ, ㅈ》인 경우

례: 발동[발똥], 결실[결씰], 발전[발쩐]

2) 일부 고유어로 된 보조적단어가 《ㄹ》 뒤에 오는 경우

례: 열개[열깨], 여덟그루[여덜끄루], (집)열동[열똥]

3) 규정토 《ㄹ》의 뒤에 오는 경우

례: — 들것[들껃], 갈데[갈떼]. 갈 사람[갈싸람]

— 들가[들까], 올지[올찌], 볼듯[볼뜯]

제15항. 일부 한자말들에서 《적(的), 성(性), 법(法), 권(權, 券), 점(點), 건(件), 가(價), 과(課, 果)》 등의 한자말은 일부 제한하여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 당적[당쩍], 시적[시쩍]
— 혁명성[형명썽], 전투성[전투썽]
— 헌법[헌뻡], 료법[료뻡]
— 주권[주꿘], 구매권[구매꿘]
— 사건[사껀], 조건[조껀]
— 물가[물까], 시가[시까]
— 내과[내꽈], 외과[외꽈], 자재과[자재꽈]

제16항. 단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순한소리앞에 끼여나는 경우는 그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경우

례: — 된벼락, 센바람, 봄가을, 날바다, 별세계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

례: — 논두렁[논뚜렁], 손가락[손까락], 손등[손뜽], 안사람[안싸람]

— 전주대[전주때], 나루가[나루
까], 강가[강까], 그믐달[그
믐딸]

제17항. 말줄기의 끝받침 《ㅎ》, 《ㄶ》, 《ㄾ》 뒤에 오는 토의 순한소리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좋소[조쏘], 많습니다[만씀니다], 옳소[올쏘]

제7장. 《ㅎ》과 어울린 거센소리되기 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18항. 토나 뒤붙이의 첫머리에 온 순한소리는 말줄기의 끝받침 《ㅎ,ㄶ, ㄾ》 뒤에서 거센소리로 발음한다.

례: — 좋다[조타], 좋고[조코], 좋지[조치]
— 많다[만타], 많고[만코], 많지[만치]
— 옳다[올타], 옳고[올코], 옳지[올치]

제19항. 한 단어안에서 받침《ㄱ, ㄷ, ㅂ, ㅈ》이나 《ㄵ, ㄺ, ㄾ》뒤에 《ㅎ》이 올 때 그 《ㅎ》은 각각 [ㅋ, ㅍ, ㅌ, ㅊ] 으로 발음한다.

례: — 먹히다[머키다], 특히[트키], 딱하다[따카다], 역할[여칼], 맏형[마텽], 잡히다[자피다], 맺히다[매치다], 꽂히다[꼬치다]

— 앉혔다[안쳗따], 얹히다[언치다], 밝혔다[발켤따], 밝히다[발키다], 넓혔다[널폗따], 밟히다[발피다]

제8장 닮기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제20항. 받침 《ㄷ, ㅌ, ㄾ》뒤에 토나 뒤붙이인《이》가 올 때 그《이》는 각각 [지, 치]로 발음한다.

례: 가을걷이[가을거지],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핥이다[할치다]

제21항. 받침 《ㄱ, ㄲ, ㅋ, ㄳ》, 《ㄷ, ㅅ, ㅈ, ㅊ, ㅌ, ㅆ》, 《ㄻ, ㅂ, ㅄ, ㅍ》 뒤에 자음 《ㄴ, ㅁ, ㄹ》이 이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받침 《ㄱ, ㄲ, ㅋ, ㄳ》은 [ㅇ]으로 발음한다.

례: 익는다[잉는다], 격멸[경멸], 식료품[싱료품], 몪나눔[몽나눔], 동녘노을[동녕노을], 부엌문[부엉문], 닦네[당네]

2) 받침 《ㄷ, ㅅ, ㅈ, ㅊ, ㅌ, ㅆ》은 [ㄴ]으로 발음한다.

례: 받는다[반는다], 맏며느리[만며느리], 웃느냐[운느냐], 옷매무시[온매무시], 낫날[난날], 젖먹이[전머기], 꽃눈[꼰눈], 밭머리[반머리], 있는것[인는걷]

3) 받침 《ㄻ, ㅂ, ㅄ, ㅍ》은 [ㅁ]으로 발음한다.

례: 밟는다[밤는다], 법령[범령], 없는
것[엄는걷], 앞마을[암마을]

제22항. 받침《ㄹ》뒤에《ㄴ》이 왔거나 받침《ㄴ》뒤에《ㄹ》이 올 때에는 그《ㄴ》을 [ㄹ]로 발음한다.

례: — 들놀이[들로리], 물농사[물롱사]
별나라[별라라], 살눈섭[살룬섭]
— 근로자[글로자], 본래[볼래], 천
리마[철리마], 난로[날로], 진리
[질리], 원리[월리], 권리[궐리]

그러나 형태부들의 경계에서는 뒤의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례: 순리익[순니익], 발전량[발쩐냥]

제23항. 받침《ㄴ》뒤에《ㄴ》이 올 때에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눈나비, 단내, 분노, 신념, 안내

제24항. 받침소리 [ㅁ, ㅇ]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례: 법령[범녕], 목란[몽난],
백로주[뱅노주]

그러나 모음 《ㅑ, ㅕ, ㅛ, ㅠ》의 앞에서는 [ㄴ] 또는 [ㄹ]로 발음할 수도 있다.

례: — 식량[싱냥/싱량], 협력[혐녁/혐력]
— 식료[싱뇨/싱료], 청류벽[청뉴벽/청류벽]

제9장. 소리끼우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25항. 고유어가 들어가 만들어진 합친말(또는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뒤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앞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형태부 사이에 [ㄴ]을 끼워 발음한다.

례: — 논일[논닐], 밭일[반닐], 꽃잎[꼰

닙], 안팎일[안팡닐], 옛일[옌
닐], 낯익은[난니근], 못잊을[몬
니즐], 짓이기다[진니기다]
— 들양[들냥→들량], 산양[산냥]
— 불여우[불녀우→불려우]
— 눈요기[눈뇨기]
— 풋윷[푼뉻]

그러나《있다》의 경우에는 제10항에 준하여 끊어내기로 발음한다.

2) 앞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날 땡는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에 한하여 [ㄴㄴ]을 끼워 발음한다.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경우

례: 나라일, 바다일, 베개잇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

례: — 수여우[순녀우], 수양[순냥]
— 아랫니[아랜니]

제26항. 《암, 수》가 들어가 만들어진 단어의 발음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뒤형태부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ㅈ》인 경

우는 [ㅋ, ㅌ, ㅍ, ㅊ]의 거센소리로 발음한다.

례: — 암돼지[암퇘지], 수강아지[수캉아지], 수병아리[수평아리]

— 암기와[암키와], 수돌쩌귀[수돌쩌귀]

2) 그밖의 경우 앞형태부가 《수》이면 사이소리를 끼워 발음한다.

례: — 수사자[숟사자→수싸자], 수소[숟소→수쏘]

— 수나비[숟나비→순나비], 수오리[숟오리→수도리]

제27항. 고유어로 만들어지는 일부 합친말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끼여나는 경우에는 형태부들사이에 《ㄷ》을 끼워 발음한다.

례: — 강가[강ㄷ가→강까], 길가[길ㄷ가→길까]

— 바다가[바닫가→바다까], 수도가

[수돋가→수도까]

— 뒤문[뒫문→뒨문], 뒤사람[뒫사람→뒤싸람]

제10장. 약화 또는 빠지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28항. 말줄기끝의《ㅎ》은 모음으로 시작된 토나 뒤붙이앞에서 발음하지 않는다.

례: 낳아[나아], 낳으니[나으니]

닿아[다아], 많아[만아→마나]

싫어[실어→시러]

제29항. 소리마디의 첫소리《ㅎ》은 모음이나 울림자음뒤에서 약하게 발음할수 있다.

례: 마흔, 아흐레, 안해, 열흘, 부지런히, 확실히, 험하다, 말하다

제30항. 둘받침《ㄾㅎ》으로 끝나는 말줄기에《ㄴ》으로 시작되는 토가 이어질 때《ㅎ》은 받침소리로 내지 않는다.

례: 옳네[올레], 싫네[실레], 곯느니라[골르니라]

[붙임]

《ㄶㅎ》으로 끝나는 말줄기에《ㄴ》으로 시작되는 토가 이어질 때의《ㅎ》도 받침소리로 내지 않는다.

례: [제8항 6조 참조]

조선글의 쓰기

조선글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로쓰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수하게 내려쓸 때에는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내려쓴다.

그러나 가로쓰는 글과 배합하여 내려쓰는 경우에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려쓸 때의 맞춤법, 띄여쓰기, 부호 등은 다 가로쓸 때의 규칙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